



2012년 11월 30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유럽발 기저효과는 가능한가 (5) : 은행

• 이머징마켓 동향

상해지수 추가 조정, 홍콩H지수 반등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MDS테크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스물캡, 통신서비스, 화학, 메리츠화재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22(목)	11/23(금)	11/26(월)	11/27(화)	11/28(수)	11/29(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99.50	1,911.33	1,908.51	1,925.20	1,912.78	1,934.85
	등락폭	15.46	11.83	-2.82	16.69	-12.42	22.07
	등락종목	상승(상한)	439(4)	402(2)	403(20)	404(5)	537(3)
		하락(하한)	365(2)	405(1)	390(4)	416(0)	525(1)
	ADR	82.29	87.53	90.97	89.11	83.17	88.02
	이격도	10 일	100.65	101.24	101.05	101.74	100.99
		20 일	100.05	100.62	100.42	101.23	100.58
	투자심리	40	50	50	6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08	324	274	581	404	383
	거래대금 (십억 원)	3,691	3,536	3,178	4,675	3,836	4,759
코스닥	코스닥지수	497.03	498.82	496.24	493.63	494.48	496.73
	등락폭	4.84	1.79	-2.58	-2.61	0.85	2.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58(10)	468(10)	450(25)	376(7)	420(6)
		하락(하한)	372(6)	456(1)	495(10)	561(4)	508(1)
	ADR	82.42	87.78	92.36	88.80	84.00	86.08
	이격도	10 일	99.12	99.90	99.89	99.77	100.12
		20 일	98.25	98.67	98.15	97.71	98.02
	투자심리	50	50	40	4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68	410	499	508	430	443
	거래대금 (십억 원)	1,762	1,711	1,751	2,163	1,691	1,78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01.7	1,194.5	1,432.0	208.7	175.9	344.7	77.5	95.6	371.6	59.0
	매도	2,425.3	1,150.6	1,163.5	245.8	131.2	289.2	39.1	36.3	324.0	47.8
	순매수	-323.6	44.0	268.5	-37.1	44.7	55.5	38.4	59.3	47.6	11.2
	11 월 누계	-995.0	-635.9	1,775.4	-20.4	69.3	274.8	116.8	83.3	927.7	-144.5
	12 년 누계	-12,072.2	13,042.0	3,830.9	1,563.3	2,631.8	-4,818.1	95.5	501.0	3,168.2	-4,800.7
코스닥	매수	1,631.0	66.7	91.5	14.1	11.7	17.7	4.0	4.9	33.1	14.8
	매도	1,636.2	75.3	77.9	15.4	10.4	21.9	5.6	4.1	16.4	14.7
	순매수	-5.1	-8.6	13.6	-1.3	1.3	-4.2	-1.6	0.8	16.7	0.2
	11 월 누계	122.7	-80.1	85.8	-5.2	1.2	69.4	-75.7	2.7	87.4	-128.4
	12 년 누계	1,215.4	34.3	-406.9	47.2	82.3	-544.9	-271.0	-35.6	309.0	-842.8

유럽발 기저효과는 가능한가 (5) : 은행

11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9.08배
12MF PBR	1.02배
Yield Gap	8.2%P

- ▶ 유럽 은행지수 Key Level에 도달 : 정말 장이 되려면 유럽 은행주가 이 레벨을 넘어야
- ▶ 유럽 은행주 PBR 0.7배 수준 : 2009년 미국 은행주 1배 회복 후 주식시장 본격 상승
- ▶ 12월 1일 스페인 배드뱅크 출범, 12월 6일 ECB 회의,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등 기대

유럽 은행지수 Key Level에
도달 : 정말 장이 되려면
이 레벨을 넘어야 한다

■ 유럽 은행주 PBR 1배 회복은 가능한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도 있었지만 화학, 건설, 조선, 철강 등 그간 눌려있던 베타 높은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유럽 효과가 크다 하겠다.

그간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유럽을 좋게 보고 있다. 2013년 상반기는 유럽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 있다. 살던 집을 차압당해 거리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시스템은 채권자의 권리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어진다. 디레버리징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택할 수 있는 전략은 ‘억눌렸던 소비(pent-up demand)’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지난 번 자료에서 자동차, 기초금속, 화학제품 등을 언급한 것은 그런 맥락이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관련 섹터는 여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시장이 중기 상승추세에 안착하려면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유럽 은행지수가 지난 3월 2차 LTRO 때문에 반짝 강세를 보였을 당시의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키 레벨(Key level)이다.

[그림 1] 블룸버그 유럽 500 은행 지수, 키 레벨에 도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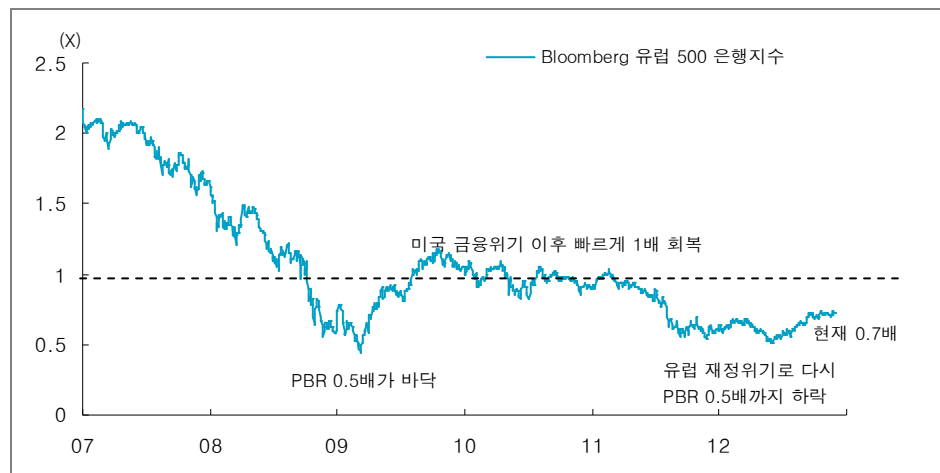
아직은 유럽 은행주 PBR
0.7배 : 2009년 미국은 은행
주가 1배 회복한 후 주식시장
본격 상승

장부가치, 즉 PBR 측면에서 보면 유럽 은행들은 아직 1배를 회복하지 못했다. 현재 PBR 0.73배 수준으로 1배가 되려면 30%는 더 올라야 한다. 이 말인 즉슨, 투자자들이 유럽의 시스템 리스크가 아직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뜻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주는 2009년 2월 PBR 0.5배로 진바닥을 찍고 두 달만에 1배 수준을 회복했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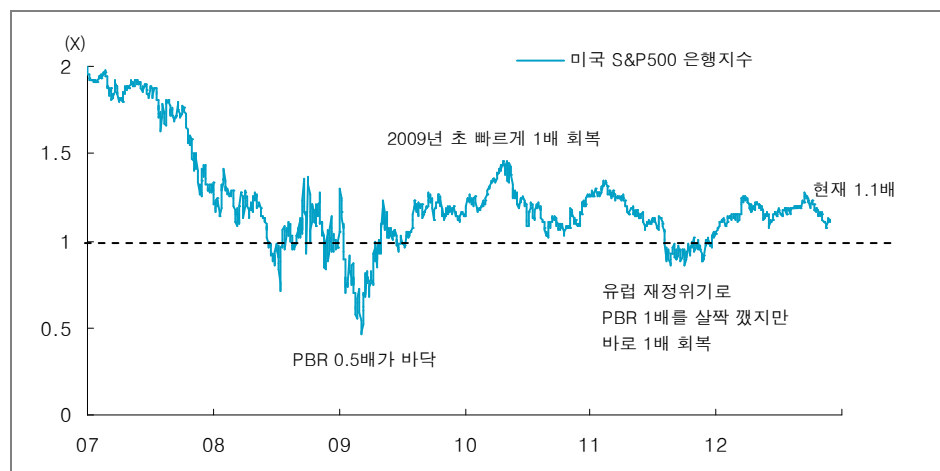
유럽 은행주는 지난 6월 PBR 0.5배에서 진바닥은 나왔지만 아직도 0.7배다. 스페인 배드뱅크가 12월 1일에 설립되고 그리스 구제금융도 지급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만약 [그림 1]의 키 레벨(Key Level)을 돌파해 유럽 은행주가 1배로 가는 길을 뚫는다면, 주식시장은 이제부터 상당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유럽 은행 현재 PBR 0.7배 수준에서 거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 은행은 2009년 4월 PBR 1배를 회복했고 이후 주식시장 본격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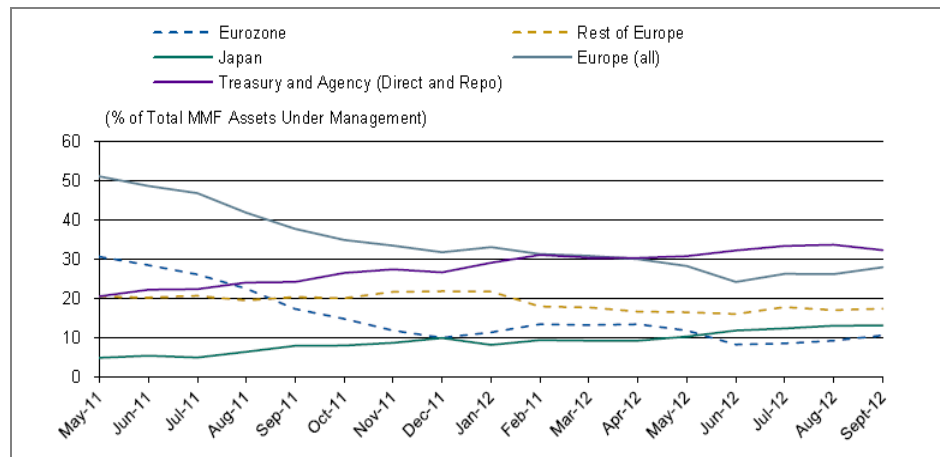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유럽 은행채 서서히 소화되기 시작하는 조짐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좋은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초 Fitch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프라임 MMF의 유로존 은행 익스포저는 9월 기준 10.6%로 전월보다 16%나 늘어났다. 특히 프랑스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월비 44%나 증가해 올해 최고치인 총 자산의 3.9% 수준까지 올라갔다. 작년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지만 소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면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그 동안 유럽 은행채의 대용품 역할을 미국 국채가 했기 때문이다.

[그림 4] 미국 MMF의 국가별 익스포저 : 유럽 은행 단기채 소폭 소화되기 시작



자료: Fitch, 한국투자증권

<표 1> 미국 prime MMF 미국채 익스포저 : 11년 상반기 20%에서 최근 33%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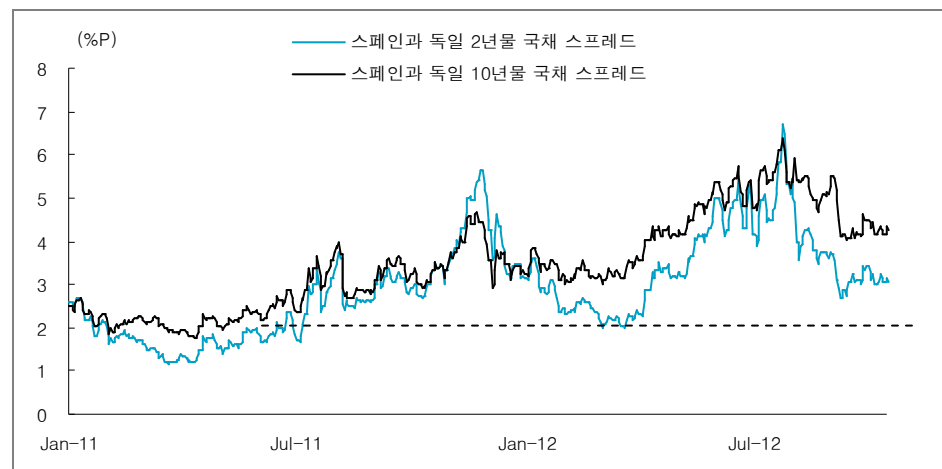
	Treasury	Agency	Repos Collateralized by Treasury / Agencies	Total
1H07	0.0	2.3	3.9	6.2
2H07	1.0	3.9	6.8	11.7
1H08	6.0	7.9	4.0	18.0
2H08	4.4	15.4	2.9	22.7
1H09	5.5	14.6	3.5	23.6
2H09	5.0	8.0	5.1	18.1
1H10	6.8	10.5	6.4	23.7
2H10	5.8	7.8	5.8	19.5
2011.02	6.6	7.9	7.7	22.2
2011.05	6.4	6.0	8.1	20.5
2011.06	6.5	6.5	9.1	22.2
2011.07	8.0	7.6	6.7	22.3
2011.08	7.8	9.3	6.9	24.0
2011.09	7.6	10.0	6.5	24.2
2011.10	10.0	9.4	7.1	26.5
2011.11	9.2	9.4	8.7	27.4
2011.12	8.9	9.9	7.9	26.6
2012.01	8.6	10.4	10.1	29.0
2012.02	10.4	9.8	10.9	31.0
2012.03	12.1	9.7	8.5	30.4
2012.04	12.7	8.3	9.4	30.3
2012.05	12.7	8.1	10.0	30.8
2012.06	14.0	8.7	9.4	32.2
2012.07	13.4	8.5	11.4	33.4
2012.08	14.1	7.5	12.2	33.7
2012.09	13.9	8.0	10.4	32.3

자료: Fitch, 한국투자증권

아래 [그림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스페인과 독일 국채의 스프레드는 지난 7월 말에 비하면 많이 좁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자산과 정부의 부담력에 대해 여전히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면 구제금융 신청과 ECB의 OMT 프로그램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는 12월 6일 ECB 회의 전후로 금리 인하를 포함해 모종의 조치가 나온다면 금상첨화겠다. 과연 유럽 정치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과감하게 선사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유럽발 기저효과는 이제 본격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림 5] 스페인과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 : 더 좁아져야 한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상해지수 추가 조정, 홍콩H지수 반등

- ▶ 중국 귀수칭 증감회 주석, 구체적 언급 피했으나 여전히 증시에 대한 신뢰감 표명
- ▶ 중국 귀수칭 증감회 주석, 국유자산 사회보장기금에 증자 방안 제안
- ▶ 중국, 대기물량 불구, A주 시장 IPO 실제 중단 상태 - 신화통신

상해종합지수 추가 하락
증권주 급락. 그 외 정유,
비철금속, 유틸리티업종
약세 주도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1,960p 수준까지 하락하며 사흘째 2,000p를 하회했다. 장 중 소폭의 반등세를 유지했으나 후반 약세로 전환했다. 거래금액은 332억 위안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 기대에 따른 해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매수심리를 나타냈다. 12월에 보호예수해제 규모가 급증하고 IPO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수수료 20% 인하 루머로 증권주가 동반 급락했고 일부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해 장 후반 지수를 끌어내렸다. 주류업체들의 급락세도 지속됐다. 증권(-7.6%), 석유/천연가스(-2.3%), 비철금속(-2.1%), 유틸리티(-1.7%), 섬유/의복(-1.5%), 여행(-1.5%), 석탄(-1.4%), 통신장비(-1.1%), 가전(-0.8%), 건설(-0.8%), 자동차(-0.7%), 항공(-0.7%), 음식료(-0.6%), 부동산(-0.6%), 은행(-0.5%), 기계(-0.4%) 등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철강, 제약업종은 강세로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나흘 만에 반등
은행, 자동차주 큰 폭 상승
통신, 항공, 증권주 하락

A주 시장과 달리 홍콩H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이 부각됐다. 위안화 강세와 해외자금 유입이 지속됐고 인민보험그룹의 IPO 청약호황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흘간의 약세에서 벗어났다. 바젤 3 적용을 앞두고 주요 은행들이 자기자본 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은행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 그 외 판매호조로 자동차주가 급등했고 식품, 광업, 건설, 정유주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통신, 항공, 전력, 헬스케어 관련주는 소폭 내렸고 수수료 인하 루머로 증권주가 동반 약세였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29(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1,963.49	-0.51	-2.59	-5.09	-10.73
홍콩 H	10,488.10	0.86	-0.04	-0.89	5.55
인도 SENSEX	19,098.22	1.36	3.46	3.20	23.57
러시아 RTS	1,416.83	1.39	-0.21	-1.19	2.53
브라질 보베스파	56,539.40	0.52	0.53	-0.93	-0.38
베트남 VN	378.20	0.64	-1.31	-2.63	7.58
MSCI 이머징마켓	991.27	-0.52	0.56	-0.41	8.17

주: 29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재정절벽 협상 타결 기대감에 코스피는 1,930P선 탈환

- 미국 증시는 주택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 10Pt이상 상승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주도, 1,930P선 탈환에 성공.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코스닥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미국 연비 이슈에도 불구하고 브릭스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소식이 전해지며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관련 부품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으며, 중국의 소비확대 정책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콜마가 급등세를 보임, '이문셀-엘씨'의 3상 임상시험 최종 완료 소식에 이노셀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업황 회복 기대감에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임.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가 임박함에 따라 성공 기대감에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며 반사이익 기대감에 OCI, 넥셀론 등은 강세를 보인 반면, 모회사인 오성엘에스티는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현대차(005380) ▶230,500(+2.67%) 기아차(000270) ▶62,000(+4.73%)	해외발 호재에 힘입어 동반 강세 - 미국 연비 이슈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한 브릭스 시장에서의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9.8% 증가했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 - 또한, 미국 조지아주가 현지 생산라인을 가동 중인 기아차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한국콜마(161890) ▶30,350(+11.17%)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며 초강세 - 국내 화장품사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해외고객사 물량 확대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부각된다는 평가에 초강세 - 아울러, 중국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에 힘입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됨
이노셀(031390) ▶4,890(상한가)	간암 3상 임상시험 최종 완료 소식에 상한가 - 4년간 진행해왔던 간암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의 3상 임상시험이 최종 완료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 '이문셀-엘씨'는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제조되는 면역세포치료제로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
조선주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연말 발주 증가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국내 업체들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선종 위주의 발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주 증가가 예상 - STX조선해양(067250, +10.53%), 대우조선해양(042660, +6.31%), 한진중공업(097230, +4.56%), 현대미포조선(010620, +4.23%)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MDS테크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MDS테크 (086960)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1. 12A	61	8	10	1,158	6.9
	2012. 12F	63	9	11	1,349	9.7

- 편입 제외 종목: 농심(시세 부진으로 제외 -7.8%)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동일금속 (109860)	14,500 (+9.8)	13,200 (11/20)	- 크롤러크레인 트랙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렛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410 (+5.4)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동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3,250 (-8.3)	14,450 (11/0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CJ E&M (130960)	27,950 (-2.1)	28,550 (10/19)	- 모바일 기기 확산과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콘텐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게임, 영화, 방송, 음악 및 공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내재 -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 경쟁력, 다수의 영화 라인업,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유효
골프존 (121440)	63,600 (+13.6)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S (006260)	93,700 (+7.1)	87,500 (11/20)	12,291	574	234	8,410	11.1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영이앤씨 (065570)	7,370 (+1.8)	7,240 (11/07)	46	11	9	1,023	7.2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414,000 (+8.9)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9.3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54,000 (-2.3)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2.2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89,000 (+3.6)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1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14,000 (-3.7)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4.2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스몰캡: 3분기 성적표 발송 => 실적이 답이다

■ 2분기 성적표에 편성한 특별반 3개월 수익률 28.9%로 코스닥 대비 아웃퍼폼

8월 말 2분기 성적표 발송에서 추천한 top picks 및 특별반 19개 종목의 지난 3개월 수익률은 각각 27.8%, 28.9%로 동 기간 KOSDAQ과 KOSPI 수익률인 1.4%, -1.6%를 크게 아웃퍼폼했다. 중소형주의 바로미터인 KOSDAQ 시장은 7월 이후 급격한 상승 피로감으로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반의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실적이 안정적인 스마트폰 관련주 및 헬스케어 관련 종목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회사 내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가 가능한 종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 위주로 특별반 편성

우리는 이번에 39개 기업의 실적을 평가해 특별반, 향상반, 보통반으로 분류했다. 특별반에 속한 종목은 2분기에 이어 3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스마트디바이스 관련주와 니치마켓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향상반은 3분기에는 중립내지 부진했지만 4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들이다. 보통반은 3분기와 4분기 실적 모두 아직 의미 있는 모멘텀이 발견되지 않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별반과 향상반 종목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특별반 및 향상반 중 7개 기업을 선호종목으로 추천

우리는 특별반 및 향상반 중 7개 기업을 선호종목으로 추천한다. 그 기준은 1) 전방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거나, 2) 저성장 시대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보유한 업체이거나, 3) 계절적 영향을 받아 실적 모멘텀이 살아 있는 회사이다. 특별반에서 동일금융, 휴비즈, 디지털옵틱, 옵트론텍 등 4개 종목을, 향상반에서 삼영이엔씨, MDS테크, 무학 등 3개 종목을 최선호 종목으로 추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통신서비스: 자회사가 수익 호전의 동력으로 부상

■ 비통신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 증가

통신업계는 타 산업과의 융합 및 타 산업 진출 등 비통신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통신 자회사가 늘고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의 자회사 영업이익이 연결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각각 -3.4%, 0.8%에서 2011년에 3.3%, 9.5%로 상승했고 2012년 1~3분기에는 6.8%, 16.6%로 더욱 높아졌다. 통신산업의 성장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통신 자회사의 수익 호전은 매우 고무적이다.

■ 자회사의 수익 개선으로 투자자산 가치 증가할 것

SK텔레콤 자회사의 수익성은 2011년까지 부진했으나 2012년 상반기 SK브로드밴드에 이어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가 흑자로 전환했다. SK플래닛은 Tstore, 11번가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KT의 비통신 사업은 미디어, BC카드, 렌탈 사업이 핵심이다.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년 만에 7.1%p 상승했다. BC카드, KT렌탈, KT스카이라이프 등 자회사는 대부분 수익성이 양호하다. 6월 SK텔레콤과 KT의 투자자산은 각각 8.7조원, 1.7조원으로 시가총액의 72.1%, 16.6%에 달하나 수익이 부진해 투자자산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 2013년부터는 자회사 수익 개선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증가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KT의 자회사 수익 기여도가 높으나 중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이 더욱 클 것이다.

■ ARPU 증가, 마케팅경쟁 완화, 배당 매력으로 비중확대 의견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2013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5.1% 증가하고, 연말 연초부터 마케팅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12MF PER이 7.2배로 낮고 배당수익률이 5~6%로 높다. LTE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2013년부터 설비투자과 운영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화학: 부타디엔-합성고무 체인,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 중국 내 타이어 재고 감소 추세 뚜렷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함께 타이어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합성고무의 재고 소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올해 4월 이후 9월까지 중국의 타이어 재고 소진이 일어나 9월 재고량은 1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3.3% YoY). 연초에만 해도 작년보다 20% 높은 재고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는 중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올해 자동차 생산량(10월까지 누적)은 작년보다 4.5% 증가했다. 중국의 올해 자동차 생산량은 1570만대로 이중 1270만대를 차지하는 승용차의 생산량이 7.4% 증가한데 비해 상업용 차량 생산량은 6.0%가 감소했다.

■ 합성고무 재고는 아직 높은 수준,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예상

중국의 합성고무 재고는 아직 전년 대비 4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합성고무 수요의 60~70%를 차지하는 타이어의 재고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합성고무 또한 재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 4월에만 해도 작년보다 75% 높은 재고가 축적되어 있었으나 9월까지의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5-6개월 후에는 2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타이어의 재고 부담이 이미 충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증가 속도에 따라 합성고무의 재고도 더욱 빨리 소진될 수 있어 내년 1분기 중에는 합성고무 시장의 바닥을 기대해 볼 만 하다. 타이어 재고에 비해 합성고무의 재고 소진 속도가 더딘 것은 상업용 차량인 트럭의 생산량이 부진한 탓으로 추측된다. 추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고무 사용량이 큰 트럭용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면 합성고무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합성고무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천연고무 재고 소진 필요

재고 감소와 수요 회복이 합성고무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이 관련업체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가지 변수가 더 남아있다. 중국의 천연고무 재고가 급증한 점이 부담이다. 중국의 천연고무 재고량은 11월 말 13.5만톤으로 급증해 10월 말 대비 35%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 천연고무는 합성고무처럼 상시 생산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1~12월의 수확기 동안 재고를 축적해 다음해 6월까지 소모한다. 또한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6만톤의 천연고무를 매집할 예정이다.

■ 합성고무의 가격 상승은 부타디엔의 가격 상승과 함께 진행 될 것으로 예상

부타디엔-합성고무 체인의 수익성 개선은 특정 제품보다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부타디엔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호남석유와, 아시아 최대의 합성고무 메이커인 금호석유의 수혜를 예상한다. 천연고무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재고 누적에도 합성고무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고무와 합성고무(SBR)의 가격 차이는 3분기에 톤당 476달러에서 4분기 813달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향후 천연고무 가격이 재고 부담으로 인해 부진하다 해도 합성고무의 가격 상승 기회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고무 수요가 늘어난다면 현재 수급이 타이트한 부타디엔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NCC 업체들은 이미 100%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어 부타디엔 가격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는 다시 합성고무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메리츠화재(000060)

매수(유지)

목표가: 17,800원(유지)

종가(11/28): 12,900원

10월 실적: 보장성인보험 고성장에 따른 단기 비용부담은 지속

■ 보험영업 적자 전월 대비 확대

10월 순이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각각 41%, 4% 감소했다. 채권 처분익 35억원과 파생상품평가익 30억원에 힘입어 투자이익은 320억원을 기록(+38% YoY, -2% MoM)하며 전월의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보험영업 적자가 192억원(적자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각각 204억원, 34억원 확대)을 기록하며 9월 대비 더 늘어났다. 자동차 보험에서 계절적 요인과 고액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한 데다가, 장기 보장성보험 신계약 판매가 여전히 순조로웠던 가운데 신계약상각비가 늘면서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폭이 확대됐다.

■ 장기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전년대비 66% 성장

당월 장기 보장성보험 신계약은 63억원을 기록, 높았던 전월 대비로는 13% 감소했지만 전년 10월 대비로는 38% 성장했다. 주력 분야인 인보험 신계약 판매(10월 62억원, +66% YoY, -13% MoM)가 고성장을 이어간 덕분이었다. 참고로 동사의 FY12 1~10월 누적 장기 보장성보험과 인보험의 신계약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46%로 높다. 9월 중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발매한 통합형 상품(상품명: M-Basket)이 10월에도 39억원(이 중 인보험은 36억원 vs. 9월 인보험 48억원) 판매되며 보장성신계약 실적을 견인했다.

당월 투자영업이익은 320억원(+38% YoY, -2% MoM)을 기록하며 9월의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지만 늘어난 보험영업적자를 메우기에는 부족했다. 10월 운용수익률은 전월 대비 0.14%p 하락한 5.17%를 기록했는데 국내채권(+926억원 MoM)을 중심으로 운용자산이 늘어난 영향이었다(총 7.5조원 +23% YoY, +1.2% MoM).

■ 자보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으로 합산비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

당월 합산비는 105.1%를 기록 전년 동월과 전월대비 각각 5.4%p 0.9%p 상승했는데 주로 자보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 때문이었다. 10월 자보손해율은 가을철 행락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과 고액사고 건수 증가로 악화되며(K-IFRS 기준 87.2%, +4.2%p YoY, +3.2%p MoM) 전체 손해를 상승을 주도했다. 당월 사업비율 상승은(K-IFRS 기준 24.8%, +4.5%p YoY, +0.4%p MoM) 보장성 신계약이 고성장을 지속한 데 따른 신계약비상각액 증가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11월 이후부터는 신상품 출시 효과가 둔화되며 보장성 신계약 증가세가 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비용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 10월 이후 주가 조정 진행.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등락 예상

동사 주가는 8~9월 보장성신계약 모멘텀에 힘입어 55%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20%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1) 3Q 이후 계절적 손해를 상승으로 인한 이익 모멘텀 둔화(2) 대선 전후의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떨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등락을 예상한다. 그러나 상위권 원수사 대비 높은 보장성 신계약 성장과 수익성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TP 17,8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FY12 BPS 10,691원에 1.6배의 PBR을 적용해 산출했다(향후 3년 평균 ROE 전망치 20.1%, 높은 재무 레버리지 감안해(12년 9월말 RBC 비율 187%) 13%의 높은 할인율과 2%의 성장률을 적용)

	경과보험료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수정 순이익 (십억원)	수정EPS (원)	증감률 (%)	수정 BPS (원)	수정PER (배)	수정 PBR (배)	수정 ROE (%)
FY10A	3,526	161	257	121	132	1,484	21.9	8,189	8.7	1.6	20.6
FY11A	4,037	221	269	165	165	1,702	14.7	9,298	7.6	1.4	20.8
FY12F	4,531	217	342	160	160	1,655	(2.8)	11,512	7.8	1.1	17.8
FY13F	5,050	311	372	229	229	2,372	43.3	13,385	5.4	1.0	20.6
FY14F	5,063	350	428	259	259	2,678	12.9	15,563	4.8	0.8	20.0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22(목)	11/23(금)	11/26(월)	11/27(화)	11/28(수)	11/29(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99.50	1,911.33	1,908.51	1,925.20	1,912.78	1,934.85
	등락폭	15.46	11.83	-2.82	16.69	-12.42	22.07
	등락종목						
	상승(상한)	439(4)	402(2)	403(20)	404(5)	272(3)	537(3)
	하락(하한)	365(2)	405(1)	390(4)	416(0)	525(1)	274(0)
	ADR	82.29	87.53	90.97	89.11	83.17	88.02
	이격도						
	10 일	100.65	101.24	101.05	101.74	100.99	101.81
	20 일	100.05	100.62	100.42	101.23	100.58	101.64
	투자심리	40	50	50	60	50	6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408	324	274	581	404	383
	거래대금 (십억 원)	3,691	3,536	3,178	4,675	3,836	4,759
	코스닥지수	497.03	498.82	496.24	493.63	494.48	496.73
	등락폭	4.84	1.79	-2.58	-2.61	0.85	2.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58(10)	468(10)	450(25)	376(7)	420(6)	496(7)
	하락(하한)	372(6)	456(1)	495(10)	561(4)	508(1)	426(6)
	ADR	82.42	87.78	92.36	88.80	84.00	86.08
	이격도						
	10 일	99.12	99.90	99.89	99.77	100.12	100.51
	20 일	98.25	98.67	98.15	97.71	98.02	98.58
	투자심리	50	50	40	4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68	410	499	508	430	443
	거래대금 (십억 원)	1,762	1,711	1,751	2,163	1,691	1,78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 증권	매수	2,101.7	1,194.5	1,432.0	208.7	175.9	344.7	77.5	95.6	371.6	59.0		
	매도	2,425.3	1,150.6	1,163.5	245.8	131.2	289.2	39.1	36.3	324.0	47.8		
	순매수	-323.6	44.0	268.5	-37.1	44.7	55.5	38.4	59.3	47.6	11.2		
	11 월 누계	-995.0	-635.9	1,775.4	-20.4	69.3	274.8	116.8	83.3	927.7	-144.5		
	12 년 누계	-12,072.2	13,042.0	3,830.9	1,563.3	2,631.8	-4,818.1	95.5	501.0	3,168.2	-4,800.7		
코스 닥	매수	1,631.0	66.7	91.5	14.1	11.7	17.7	4.0	4.9	33.1	14.8		
	매도	1,636.2	75.3	77.9	15.4	10.4	21.9	5.6	4.1	16.4	14.7		
	순매수	-5.1	-8.6	13.6	-1.3	1.3	-4.2	-1.6	0.8	16.7	0.2		
	11 월 누계	122.7	-80.1	85.8	-5.2	1.2	69.4	-75.7	2.7	87.4	-128.4		
	12 년 누계	1,215.4	34.3	-406.9	47.2	82.3	-544.9	-271.0	-35.6	309.0	-842.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56,352	전기,전자	-22,597	운수장비	64,286	전기,전자	-44,017
화학	21,807	유통업	-9,606	유통업	14,002	화학	-8,677
건설업	13,155	섬유,의복	-3,979	음식료품	9,644	통신업	-5,872
현대차	25,288	LG디스플레이	-18,844	기아차	21,152	LG디스플레이	-21,094
삼성전자	14,427	NHN	-6,225	현대모비스	19,838	삼성전자	-12,239
기아차	13,055	현대위아	-5,784	현대차	19,552	KT	-6,474
LG화학	10,035	LG전자	-5,419	롯데쇼핑	6,590	LG	-6,305
삼성중공업	8,724	KODEX 200	-4,421	대림산업	6,091	삼성엔지니어링	-6,19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2,441	음식료품	-1,558	운수장비	22,597	통신업	-7,098
운수장비	8,709	기계	-754	화학	16,612	유통업	-3,231
화학	7,454	섬유,의복	-49	건설업	8,836	운수창고	-3,223
삼성전자	15,635	KODEX 레버리지	-2,597	KINDEX200	6,098	KT	-5,927
SK이노베이션	4,337	빙그레	-1,537	금호석유	5,698	SK	-5,354
LG화학	3,629	GS	-1,511	현대모비스	5,625	LG디스플레이	-5,243
기아차	2,081	KODEX 200	-1,049	기아차	5,496	LG	-3,094
KB금융	2,047	두산중공업	-879	LG화학	4,913	CJ제일제당	-3,01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64,705	전기,전자	-14,827	운수장비	44,410	전기,전자	-31,275
화학	53,689	서비스업	-6,594	금융업	27,988	화학	-13,956
건설업	25,695	제조업	-6,544	건설업	11,724	음식료품	-11,549
KODEX 레버리지	69,846	LG디스플레이	-35,677	기아차	32,154	삼성전자	-67,622
기아차	42,900	KODEX 인버스	-26,148	하나금융지주	20,538	S-Oil	-10,163
삼성전자	42,746	SK하이닉스	-12,752	현대건설	15,394	오리온	-6,564
현대차	40,940	SK	-11,119	삼성엔지니어링	14,336	두산중공업	-6,418
현대모비스	32,165	LG	-10,340	LG전자	13,513	엔씨소프트	-6,253
금호석유	22,855	SK텔레콤	-6,667	POSCO	8,127	금호석유	-6,015
삼성중공업	21,348	KT&G	-6,598	삼성전기	7,594	GKL	-5,655
대림산업	18,158	POSCO	-6,061	KT&G	7,340	NHN	-4,430
LG화학	16,938	NHN	-5,861	대우조선해양	6,682	삼성물산	-4,227
대우조선해양	11,487	OCI	-5,427	삼성SDI	6,480	제일기획	-4,12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송장비, 부품	1,768	IT부품	-2,495
반도체	1,463	오락, 문화	-1,835
제약	1,240	인터넷	-1,774
성우하이텍	1,263	다음	-1,754
네오위즈게임즈	819	파라다이스	-1,710
메디톡스	795	게임빌	-1,179
인터파크	667	CJ오쇼핑	-895
덕산하이메탈	662	하나투어	-82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 장비	4,272	화학	-828
반도체	4,083	디지털컨텐츠	-741
오락, 문화	2,241	전문기술	-158
젠크스	3,591	에이블씨엔씨	-858
서울반도체	2,778	멜파스	-539
파라다이스	2,194	코나아이	-482
하나투어	1,548	인터플렉스	-443
셀트리온	1,421	와이지-원	-31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702	컴퓨터서비스	-682
사업지원	401	출판, 매체 복제	-410
화학	294	방송서비스	-335
성광벤드	638	플랜티넷	-690
하나투어	380	에스엠	-410
네오위즈게임즈	303	옵트론텍	-372
인탑스	289	CJ오쇼핑	-356
티케이케미칼	251	멜파스	-19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1,228	디지털컨텐츠	-1,299
반도체	1,070	IT부품	-710
방송서비스	829	오락, 문화	-656
GS홈쇼핑	1,074	인터플렉스	-1,285
실리콘웍스	935	게임빌	-1,168
포스코엠텍	909	파라다이스	-656
이엘케이	630	다음	-647
KG이니시스	464	바이로메드	-50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 장비	5,134	디지털컨텐츠	-3,866
반도체	3,995	오락, 문화	-2,882
금속	3,789	인터넷	-1,047
젠크스	4,089	파라다이스	-2,811
서울반도체	3,804	게임빌	-2,755
성광벤드	2,877	인터플렉스	-2,101
성우하이텍	2,442	컴투스	-1,433
포스코엠텍	2,242	에이블씨엔씨	-1,359
셀트리온	2,218	위메이드	-1,206
이엘케이	2,087	플랜티넷	-1,175
이노칩	1,825	다음	-1,028
평화정공	1,489	코나아이	-950
네오위즈게임즈	1,406	에스맥	-95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 매체 복제	3,802	IT부품	-7,751
의료, 정밀기기	2,777	제약	-3,637
오락, 문화	2,344	디지털컨텐츠	-3,141
에스엠	4,056	셀트리온	-4,153
뷰웍스	2,772	이엘케이	-2,723
파라다이스	2,306	안랩	-1,759
에이블씨엔씨	2,181	루멘스	-1,683
CJ오쇼핑	909	컴투스	-1,473
오스템임플란트	858	GS홈쇼핑	-1,295
씨젠	715	멜파스	-970
서울반도체	587	옵트론텍	-880
실리콘웍스	476	게임빌	-829
파트론	394	평화정공	-78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KPX화인케미칼	15 일	한화	8 일
한국단자	14 일	SK케미칼	8 일
한국셀석유	13 일	대한유화	8 일
태광산업	11 일	호남석유	8 일
대덕전자	11 일	한라공조	8 일
KODEX 국고채	11 일	유한양행	7 일
LS	10 일	하이트홀딩스	7 일
한전기술	10 일	효성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평화정공	9 일	매일유업	11 일
성우하이텍	7 일	씨엔케이인터	11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에스에프에이	9 일
포스코 ICT	4 일	테크노세미켐	7 일
아트라스BX	4 일	파트론	6 일
태웅	4 일	모두투어	5 일
서울반도체	4 일	KCC건설	4 일
우주일렉트로	4 일	오스템임플란트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81,222	LG디스플레이	65,047
현대차	148,018	삼성전기	47,764
삼성전자	145,819	강원랜드	40,482
기아차	119,784	LG전자	39,327
현대모비스	99,382	호남석유	35,785
삼성전기	95,620	현대위아	29,562
LG화학	61,899	하나금융지주	28,824
제일모직	59,778	삼성SDI	26,945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오쇼핑	5,312	에스엠	5,622
포스코엠텍	5,248	오스템임플란트	5,193
젬백스	5,193	파트론	4,861
골프존	4,720	뷰웍스	3,259
성우하이텍	3,845	매일유업	3,202
조이맥스	3,416	에이블씨엔씨	2,740
SK브로드밴드	2,458	씨젠	2,478
네패스	2,275	솔브레인	2,25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64,705	44,410 209,115
건설업		25,695	11,724 37,419
금융업		4,476	27,988 32,464
기아차		42,900	32,154 75,054
현대모비스		32,165	703 32,868
삼성중공업		21,348	1,280 22,628
LG화학		16,938	4,838 21,776
대우조선해양		11,487	6,682 18,169
현대중공업		9,571	1,195 10,766
현대제철		10,362	324 10,686
SK이노베이션		9,089	1,055 10,144
삼성증권		4,538	3,756 8,294
제일모직		7,057	1,058 8,115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 장비		5,134	175 5,309
금속		3,789	711 4,500
화학		8	2,214 2,222
서울반도체		3,804	587 4,390
젬백스		4,089	95 4,184
성광벤드		2,877	307 3,184
뷰웍스		155	2,772 2,928
네오위즈게임즈		1,406	282 1,689
씨젠		710	715 1,425
실리콘웍스		491	476 966
골프존		718	234 952
오스템임플란트		52	858 909
CJ E&M		826	11 83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카드	24 일	신한지주	11 일	동국산업	25 일	동서	14 일
동부제철	17 일	STX팬오션	9 일	파트론	14 일	셀트리온	6 일
대한유화	13 일	대덕전자	8 일	KCC건설	9 일	서부T&D	5 일
동아타이어	10 일	세아베스틸	7 일	에이블씨엔씨	9 일	EG	5 일
TIGER 자동차금	10 일	LG유플러스	7 일	태광	8 일	게임하이	4 일
TIGER 소프트웨어	9 일	NHN	7 일	매일유업	6 일	SBS콘텐츠허브	4 일
금호전기	8 일	휴켄스	7 일	인터플렉스	5 일	멜파스	4 일
카프로	8 일	아모레퍼시픽	7 일	파라다이스	4 일	엘앤에프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LG디스플레이	-80,433	삼성전자	-149,964	컴투스	-22,795	셀트리온	-18,390
TIGER 자동차금	-72,031	신한지주	-43,352	파라다이스	-18,692	안랩	-5,591
LG전자	-58,303	NHN	-33,346	솔브레인	-7,675	인탑스	-3,994
KODEX 인버스	-55,713	SK텔레콤	-27,060	AP시스템	-5,953	컴투스	-3,938
현대위아	-23,861	KB금융	-24,751	인터플렉스	-5,297	EG	-3,561
한국가스공사	-18,694	현대중공업	-24,186	태광	-5,251	파라다이스	-2,851
호텔신라	-18,660	삼성전자우	-21,825	매일유업	-4,256	이엘케이	-2,782
호남석유	-18,585	삼성카드	-21,151	코나아이	-3,809	슈프리마	-2,57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4,827	-31,275	-46,102	디지털컨텐츠	-3,866	-3,141	-7,007
기계	-4,161	-4,291	-8,452	컴퓨터서비스	-1,045	-676	-1,722
통신업	-4,849	-1,236	-6,085	인터넷	-1,047	-243	-1,291
SK하이닉스	-12,752	-3,479	-16,231	게임빌	-2,755	-829	-3,585
S-Oil	-1,917	-10,163	-12,080	컴투스	-1,433	-1,473	-2,906
두산중공업	-5,264	-6,418	-11,683	루멘스	-198	-1,683	-1,881
NHN	-5,861	-4,430	-10,291	멜파스	-887	-970	-1,857
엔씨소프트	-612	-6,253	-6,865	안랩	0	-1,759	-1,759
OCI	-5,427	-1,231	-6,658	옵트론텍	-676	-880	-1,557
KT	-4,475	-1,335	-5,810	위메이드	-1,206	-170	-1,376
CJ제일제당	-3,202	-1,896	-5,098	KG이니시스	-805	-542	-1,347
일진디스플레이	-2,309	-963	-3,272	다음	-1,028	-306	-1,334
대우인터내셔널	-2,591	-661	-3,253	플랜티넷	-1,175	-85	-1,26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122	9,188
삼성엔지니어링	50	7,795
NHN	29	7,445
KODEX 200	215	5,422
기아차	81	4,844
현대차	21	4,614
LG디스플레이	113	4,029
삼성전자	2	3,51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KG모빌리언스	60	781
CJ오쇼핑	2	508
에이블씨엔씨	6	468
포스코엡텍	33	398
파라다이스	21	382
컴투스	6	347
코나아이	18	346
나우콤	27	29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53	5,162,020
LG전자	44,210	3,311,341
POSCO	9,523	2,975,970
OCI	9,880	1,472,054
현대차	5,382	1,208,367
NHN	3,317	849,208
SK하이닉스	27,834	705,592
오리온	560	623,712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9,356	741,239
서울반도체	5,959	134,371
게임빌	428	54,969
에스엠	1,235	54,575
덕산하이메탈	2,713	53,444
에이블씨엔씨	492	38,535
위메이드	803	38,268
멜파스	1,333	36,65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계	2,576	화학	-3,237
운수창고	1,046	전기,전자	-2,112
종이,목재	402	금융업	-1,765
두산인프라코어	2,297	SK하이닉스	-1,750
한진해운	1,551	케이피케미칼	-1,464
SBS미디어홀딩스	600	KB금융	-1,095
대영포장	400	동국제강	-1,051
삼익악기	379	삼성중공업	-534
성안	373	한화케미칼	-502
S&T모터스	372	한화생명	-486
대덕GDS	313	S-Oil	-471
LG이노텍	288	현대미포조선	-457
동양	269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441

KOSDAQ			
순 증		순 감	
종합건설	558	교육	-926
제약	443	의료,정밀기기	-898
소프트웨어	313	IT부품	-651
셀트리온	474	에듀박스	-947
서한	452	솔고바이오	-857
KG모빌리언스	147	좋은사람들	-597
메디프론	129	차바이오텐	-412
KG이니시스	128	인터파크	-357
포스코엡텍	125	알에프세미	-210
코엔텍	122	위메이드	-163
서희건설	108	플렉스컴	-115
시그네틱스	95	다음	-92
하림	90	유진기업	-9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23(금)	11/26(월)	11/27(화)	11/28(수)	11/29(목)
외국인	13,042.0	-635.9	-98.1	160.7	26.7	-67.5	-263.5	44.0
기관계	3,830.9	1,775.4	931.9	50.1	67.6	382.8	164.5	268.5
(투신)	-4,818.1	274.8	144.3	24.6	-31.8	97.3	-4.1	55.5
(연기금)	3,295.3	919.5	420.1	61.0	98.0	111.8	100.4	53.2
(은행)	501.0	83.3	45.0	-4.1	5.2	-16.8	2.1	59.3
(보험)	2,631.8	69.3	23.0	-26.2	-28.3	17.2	15.5	44.7
개인	-12,072.2	-995.0	-859.1	-199.9	-93.7	-316.0	74.1	-323.6
기타	-4,800.7	-144.5	25.3	-10.9	-0.7	0.7	24.9	11.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1/22(목)	11/23(금)	11/26(월)	11/27(화)	11/28(수)
KOSPI	1,682.77	2,051.00	1,825.74	1,899.50	1,911.33	1,908.51	1,925.20	1,912.78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6549.2	16541.2	16668.4	16835.6	16929.0
(증감액)	2735.7	1996.5	3611.7	-231.8	-8.0	127.2	167.2	93.4
(회전율)	52.6	51.5	34.2	33.5	32.2	30.2	41.7	33.3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339.2	-97.8	-96.9	-6.7	15.5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351.6	4320.7	4326.5	4322.9	4302.7
미수금	240.2	192.3	187.7	127.7	133.2	110.4	93.3	104.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22(목)	11/23(금)	11/26(월)	11/27(화)	11/28(수)
전체 주식형	95,946	-6,750	130	78	33	-116	116	-63
(ex. ETF)		-9,428	-350	58	2	-136	8	-104
국내 주식형	69,203	-3,474	425	67	40	-19	128	-33
(ex. ETF)		-6,152	-59	47	8	-39	19	-74
해외 주식형	26,742	-3,276	-295	11	-7	-97	-12	-30
(ex. ETF)		-3,276	-292	11	-7	-97	-12	-30
주식 혼합형	10,343	-1,497	-19	21	-8	-5	2	-9
채권 혼합형	19,401	1,367	592	-15	-17	20	-24	-4
채권형	46,709	2,302	1,539	38	-43	584	40	134
MMF	74,173	19,510	-775	-502	-614	-1,264	-722	-92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23(금)	11/26(월)	11/27(화)	11/28(수)	11/29(목)
한 국	11,658	-584	1,184	149	25	-62	-243	40
대 만	2,685	941	1,275	426	360	179	-1	365
인 도	19,227	1,126	-54	91	37	-	-	-
인도네시아	1,653	-366	-182	30	7	-26	-21	-
태국	1,614	66	-172	-13	-25	-38	3	-
남아공	-1,050	219	-99	-31	-12	-24	-31	-
필리핀	2,181	208	-1	0	4	1	-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1/22(목)	11/23(금)	11/26(월)	11/27(화)	11/28(수)	11/29(목)
회사채 (AA-)	4.21	3.35	3.37	3.35	3.37	3.36	3.36
회사채 (BBB-)	10.01	8.73	8.75	8.73	8.75	8.74	8.74
국고채 (3년)	3.34	2.82	2.84	2.82	2.84	2.83	2.83
국고채 (5년)	3.46	2.89	2.91	2.90	2.92	2.90	2.90
국고채 (10년)	3.79	3.01	3.03	3.02	3.04	3.02	3.02
미 국채 (10년)	1.88	-	1.69	1.66	1.64	1.63	-
일 국채 (10년)	0.99	0.74	0.74	0.73	0.73	0.72	-
원/달러	1,151.80	1,085.90	1,086.10	1,085.50	1,084.10	1,086.50	1,084.10
원/엔	1,492.00	1,316.00	1,323.00	1,321.00	1,319.00	1,324.19	1,319.34
엔/달러	77.24	82.52	82.13	82.22	82.19	82.05	82.17
달러/유로	1.29	1.28	1.28	1.29	1.29	1.29	1.29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89	1.89	1.88	1.88	1.88	-
CRB 지수	305.30	-	299.07	297.74	297.77	296.70	-
LME 지수	3,306.0	3,305.0	3,344.0	3,348.4	3,371.9	3,358.5	-
BDI	1,738	1,084	1,090	1,094	1,097	1,104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	88.28	87.74	87.18	86.49	-
금 (달러/온스)	1,566.80	1,726.50	1,751.40	1,749.90	1,742.30	1,714.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23일	251.44	251.90	0.39	0.46	0.45	127,130	101,606	1,273
11월 26일	250.73	251.50	0.33	0.77	0.36	132,367	101,466	-140
11월 27일	253.41	253.75	0.32	0.34	0.55	173,122	104,798	3,332
11월 28일	251.72	252.35	0.29	0.63	0.48	116,010	101,021	-3,777
11월 29일	254.73	255.20	0.30	0.47	0.74	132,875	104,908	3,887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23일		1,364	-890	-454	215	-558	-117	-120	0
11월 26일		-2,274	1,729	621	1,372	-500	-51	12	0
11월 27일		5,065	-898	-4,290	-2,421	-474	195	-30	0
11월 28일		-2,251	764	1,654	3,372	-1,666	-98	104	0
11월 29일		6,166	-3,011	-3,630	-2,572	-503	-384	335	0
누적포지션		-7,592	2,975	3,687	3,089	4,802	-1,649	-948	-1,574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23일	467	559	92	391	476	85	76	83	7	6,126	10,077
11월 26일	460	598	138	417	524	107	43	74	31	6,110	10,090
11월 27일	610	894	284	584	685	101	26	209	183	6,041	10,207
11월 28일	744	593	-151	693	526	-167	51	67	16	6,043	10,223
11월 29일	683	984	300	663	790	127	20	194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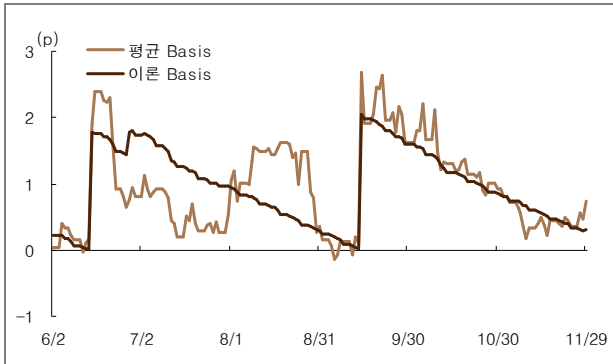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4.87	3,784	129,270	0.33	265.00	10.10	147	73	11.71
14.60	-994	128,013	0.60	262.50	7.85	343	123	12.46
14.91	-554	151,233	1.14	260.00	5.85	1,849	273	13.12
15.17	-1,445	167,380	1.95	257.50	4.20	4,816	1,131	13.89
15.56	-3,007	70,673	3.10	255.00	2.81	23,601	2,375	14.13
16.13	360	14,784	4.60	252.50	1.86	78,869	3,589	14.86
16.53	-133	4,928	6.35	250.00	1.19	90,099	2,283	15.54
17.82	-86	1,019	8.45	247.50	0.74	82,471	2,239	16.20
19.34	-48	627	10.70	245.00	0.45	86,871	3,194	16.85
19.40	81	255	12.90	242.50	0.29	61,717	1,281	17.81
20.94	17	121	15.30	240.00	0.18	58,726	2,899	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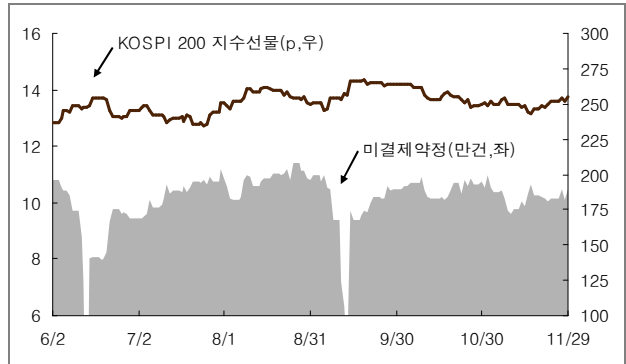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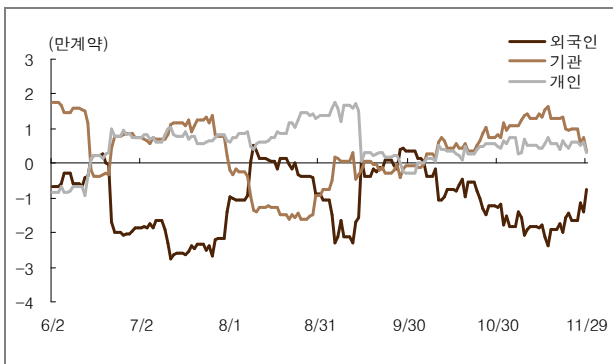
- 평균 Basis: 0.74 (전 거래일 대비 0.26 상승)
- 이론 Basis: 0.30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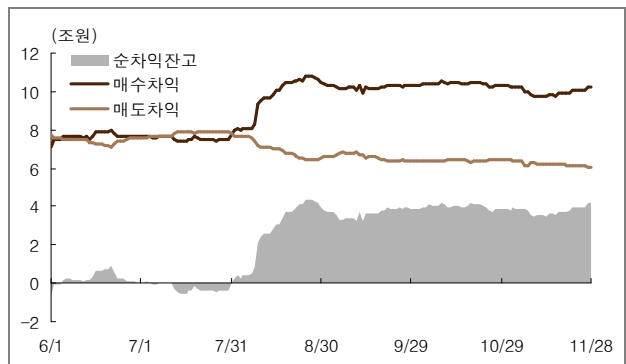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887 계약 증가한 104,908 계약
- 선물가격(255.20): 전 거래일 대비 2.8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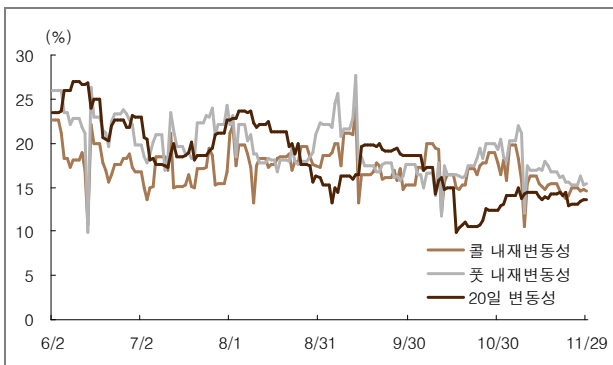
- 외국인: 6,166 계약 순매수
- 기관: 3,630 계약 순매도 / 개인: 3,011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737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1,265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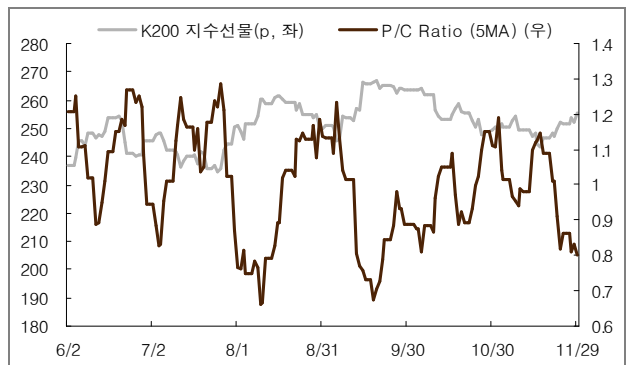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5% / 풋 15.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3.65%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말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80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9	20	21	22	23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46, 41, 41) 10월 기존주택매매 MoM (2.1%, -0.2%, -1.7%)	美> 10월 주택착공건수 MoM (3.6%, -3.7%, 15.0%) 10월 건축허가 MoM (-2.7%, -2.9%, 11.6%)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특별 회의 中> 10월 실질 FDI (-0.2%, 1.0%, -6.8%) 日> BOJ 정책금리 (0.10%, 0.10%, 0.10%)	韓> 10월 백화점 매출 YoY (-0.4%, n/a, -0.8%) 10월 할인점 매출 YoY (-6.6%, n/a, 0.2%)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2.2%, n/a, 12.6%)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1.0만, 41.0만, 43.9만)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0.2%, 0.1%, 0.6%) 日> 10월 수출 YoY (-6.5%, -4.9%, -10.3%) 10월 수입 YoY (-1.6%, -3.2%, 4.1%)	유럽> 11월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속보치 (-26.9, -25.9, -25.7)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46.2, 45.6, 45.4)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46.0, 45.7, 46.0) (11/22-23) 유로존 정상 회담 中> 11월 HSBC플레이시 PMI 제조업 (50.4, n/a, 49.5)	美> 블랙 프라이데이
26	27	28	29	30
韓>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99, n/a, 98) 美> 사이버 먼데이 유럽> (11/25) 스페인 카탈루냐 조기 총선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특별 회의	韓>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美> 10월 내구재 주문 MoM (0.0%, -0.7%, 9.9%) 9월 S&P/CS주택가격지수 MoM (0.39%, 0.40%, 0.49%)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73.7, 73.0, 72.2) 9월 주택가격지수 MoM (0.2%, 0.4%, 0.7%) 연준 베이지북 공개	韓> 10월 경상수지 (\$5,820.1M, n/a, \$6,066.2M)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0.9%, n/a, -2.2%) 10월 신규주택매매 MoM (-0.3%, 0.3%, 5.7%)	韓> 12월 BSI 제조업 (67 BSI 비제조업 (65, n/a, 67)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9.0만, 41.0만) 10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1.0%, 0.3%) 中> 10월 선행지수 (100.42, n/a, 100.49)	韓> 10월 산업생산 YoY (n/a, 1.0%, 0.7%)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n/a, n/a, -0.7) 美> 10월 개인소득 MoM (n/a, 0.2%, 0.4%) 10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0%, 0.8%) 유럽> 10월 유로존 실업률 (n/a, 11.7%, 11.6%) 日> 10월 실업률 (n/a, 4.2%, 4.2%) 10월 국내 CPI YoY (n/a, -0.4%, -0.3%) 10월 산업생산 YoY 속보치 (n/a, -8.0%, -8.1%)
3	4	5	6	7
韓> (12/1) 11월 수출 YoY (12/1) 11월 수입 YoY (12/1) 11월 무역수지 11월 외환보유액 (미확정)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11월 ISM 제조업 10월 건설지출 MoM 유럽> (12/1) 스페인 배드뱅크 출범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中> (12/1) 11월 PMI 제조업 11월 PMI 비제조업 11월 HSBC PMI 제조업	美> 11월 국내 자동차판매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월 ADP취업자 변동 11월 ISM 비제조업 10월 제조업수주 MoM 유럽>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10월 유로존 소매판매 YoY 中> 11월 HSBC PMI 서비스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럽> ECB 금리 공시 BOE 금리 공시	美> 11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11월 실업률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속보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만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